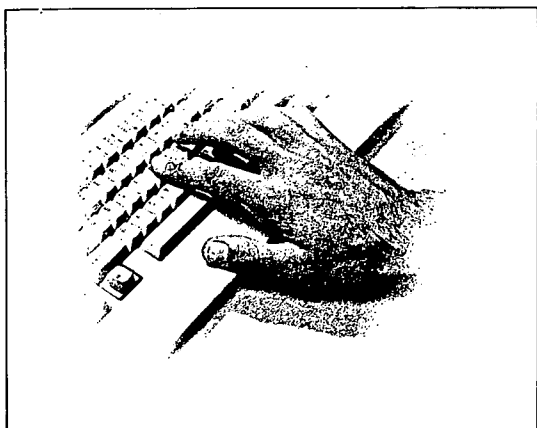


정보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영재 교수

(동국대학교 경상대학 정보관리학과)



우리는 흔히 현대를 “정보화 사회” 또는 “정보화시대”라 일컫는다. “정보화사회”라는 명칭 및 개념에 대하여 학자에 따라 달리 표현하고 있다. Daniel Bell은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라고 하고, Alvin Toffler는 “초산업사회”, Amitai Etzioni는 “탈근대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약간의 개념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통점은 미래사회에 있어 정보가 권력의 핵으로 등장하는 사회, 인간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가치창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날로 격화되는 경쟁과 치열한 생존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어느 사회학자의 “정

치적 국경은 있어도 경제적 국경은 없다”라는 말처럼 기업의 경영환경은 기존의 국가적 환경에서 점차로 세계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보는 기업에 있어 전략적 우위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업자원의 한 요소로서 자리잡고 있다. 정보의 생산, 유통, 획득을 통한 보다 나은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업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보”가 국가 및 조직에 상당한 변화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국민들의 생활에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 대한 절적한 대응과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정보화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한다.

현재 가장 널리 보급되어져 있는 정보전달기기는 전화이다. 이와 함께 근래에 확산보급되고 있는 팩시밀리도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필수적인 정보기기로 되어져 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팩시밀리를 이용한 각종 정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매물, 음식, 스포츠, 생활등 필요한 정보를 무엇이든지 팩시밀리로 받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전화를 이용하여 각종생활정보, 스포츠정보등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또한 널리 보급되어져 있는 가정의 PC와 판매회사와의 직접

적인 연결로 화면으로 구매상품의 모양 및 설명을 보면서 발주하고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판매방식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의료, 지하철이용시스템, 은행상품소개 시스템 등 그야말로 각종 정보화 기기 및 기술들은 인간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간의 생활은 점차 편리하여져 가고 있다. 많은 기업의 관심과 일반인들의 정보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정보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정보산업의 기반이라할 수 있는 정보의 생산과 신속한 교류를 위한 정보통신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을 이야기 할 때 모든 논의의 끝은 데이터베이스이다. 퍼스널컴퓨터 통신, 근거리통신망(LAN), 부가가치통신망(VAN), 무선통신 등 정보통신 산업들의 핵심요소들의 중요성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교환할 수 있는냐는 문제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국가 및 조직이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현재 미국은 생산기술면에서 일본에 뒤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초과학이나 기반기술은 여전히 일본보다 우위에 서있다. '88년말을 기준으로 미국 4천 42개, 일본 2천 8백58개, 한국 1백 16개로 데이터베이스 수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방대한 자료의 집적"이라 할때 그 구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때 일본과 서구유럽이 엄청난 시간과 인력, 비용을 투자하면서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시도하였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단순히 돈과 인력만으로 구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시간에 걸쳐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지적활동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

집, 정리, 축적해 효과적으로 검색, 이용할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바탕으로 전국의 도서관, 연구소, 기업, 정부부처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언제, 어디서든 필요로하는 모든 정보를 즉각 입수하여 생산성향상에 반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있다. 그것이 정보고속도로라는 것이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싱가포르는 국가컴퓨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정보기술계획"이라는 계획을 입안하여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착실히 정보산업을 발전시켜 가고 있으며 대만은 정보산업발전 10개년 계획을 입안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 일본, 서구유럽등은 물론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와 대만도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이 국가 및 모든 조직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각종 제도의 미흡등으로 인하여 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 홍수시대"라고 말하면서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정보수요자인 국민들의 정보이용이 정보화 사회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성장에 왜 중요하며, 또한 정보이용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어원은 1950년대 미국 국방성이 전력의 유지, 전개를 위하여 정보를 집중보관 관리하면서 이를 위한 도구로써 편집된 컴퓨터 라이브러리(Computer Library)를 "데이터기지(base)"라고 부르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데이터의 수집이나 집합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데이터베이스는 ① 데이터의 다량집적, ②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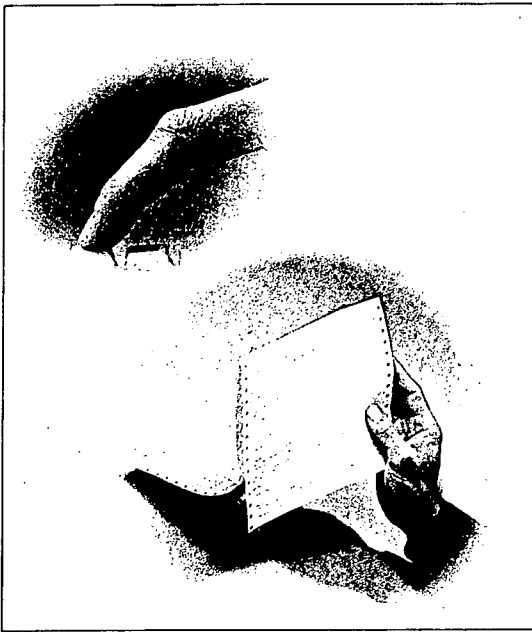
간의 관련성, ③ 컴퓨터 처리의 편의성, ④ 공유 가능성 ⑤ 대량전달 가능성, ⑥ 재생산가능성, ⑦ 접근편의성, ⑧ 다양한 서비스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상품(예:단행본, 신문, 잡지등)이나 정보서비스의 모습으로 유통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데이터의 집합체인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내용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인간의 지적인 행동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지적인 활동의 발전과 함께 그때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면서 그 모습을 변화, 발전시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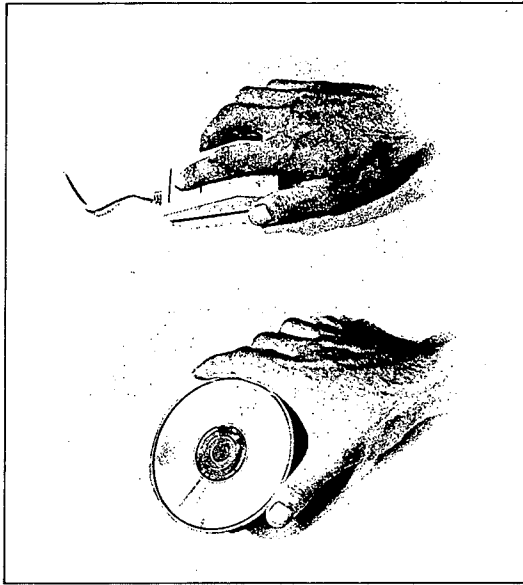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들어 ① 표현형태별로는 문자데이터베이스, 수치데이터베이스, 영상 데이터베이스, 화상데이터베이스, 음성데이터베이스 등으로 ② 이용대상별로는 일반공중용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용 데이터베이

스, 행정용 데이터베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주제에 따라 과학, 기술정보, 경제, 경영, 산업정보 ... 등 그 분류방법은 많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생산, 유통등은 현재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데이터베이스 산업이라고 부른다. 그 구조를 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자(Information Provider),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부문을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자(DB Producer), 유통분야를 담당하는 데이터 베이스 유통업자(DB Distributer), VAN 사업자 그리고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검색 대행업자(Information Broker)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산업구조의 수요부문에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가 포함된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데이터베이스 시장은 89년 26억, 91년 69억, 95년 715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업체수는 91년 80개업체에서 92년 213개 업체로, 상용 데이터베이스 수도 91년 115개에서 92년 354개로 2배이상 신장되었다. 또한 개인용컴퓨터(PC) 보급대수가 약 600 만대로서 이는 2가정에 한대꼴로 PC가 보급되어져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기본통신시설인 전화 보급시설수는 1992년 12월 현재 1,902만회선으로서 모든 가정에 1회선씩의 통신회선이 있다라고 볼수 있다. 이와같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 확산과 함께 국내 데이터베이스 시장은 확대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 6월 현재 국내 3대 데이터베이스 유통사업(데이콤, PC통신, 에이텔)의 유료 가입자수가 176,673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 물론 데이터베





이스 이용자수가 91년 27만명에서 92년 35만명으로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영세성을 띠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보를 이용하는 수요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상생활에 정보를 활용하는 습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정보자체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으며, 또한 정보가 상품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 문제점으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일반적으로 낮다. 그 결과로 정보를 적극적으로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수요층이 얇은 상황이다.

정보문화의 달에 국민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시장형성을 살펴보면 일반시장과는 달리 구매자 위주 시장이라기 보다는 판매자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먼저

개인용컴퓨터(PC)로 통신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정부의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대민서비스를 PC통신화 할 수 있는 즉, 주민등록, 토지대장, 전화문의등과 같은 대상들을 발굴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 차별화전략이다. 국민들이 위와같은 정보서비스를 PC를 통하여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뿐만아니라 편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민간매체를 이용하여 공익광고 형식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다. 셋째, 발굴된 정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정부차원의 서비스 강제성 전략이다. 이 서비스에 우선권등을 부여하고, 절차를 강구해서 어느정도 국민생활에 정착이 될 때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다. 넷째, PC통신에 의한 정보서비스를 인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이다. 예로, PC에서 출력된 주민등록등본을 공공기관등에서 인정하여 접수하여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대민서비스등의 타서비스와 연계추진을 가능토록하고 사용자 편의 위주로 강화시키는 일이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 활용방안, 부가가치성에 대한 교육을 현 교육체계에 적절히 수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확대와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의 착실한 실행과 함께 정보의 효율적/효과적 이용과 전략적 이용이 "정보화 사회"에 확산되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서비스 창출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들이 입안되고 실천되어짐으로서 국민 모두가 정보화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보의 생산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활성화정도가 미래사회에서 국가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